

상완골 대결절의 비전위성 골절의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제안

박태수, 김도형, 김용호, 박명률, 최일용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상완골 근위부 골절에 대한 분류, 진단 및 치료는 Neer의 가설이 폭넓게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상완골 대결절의 비전위성 골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존 치료만으로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보고들이 국내외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양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실에서는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치료한 상완골 대결절 비전위성 골절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한 환자군으로 구분하여 원시추시가 가능하였던 16례에 대한 증례 및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CT scan 및 Sun workstation computer를 이용하여 얻은 3차원 영상으로 여러 위치에서의 견봉하 공간의 거리 측정 및 computer를 이용하여 임의로 대결절을 절단하여 상방이동을 시켜 충돌(bony kissing)이 일어나는 전위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정상 사체의 상완골의 특정 부위에 대한 측정도 함께 시행하여, 상완골 대결절의 비전위성 골절의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A new suggestion to the treatment of minimal displaced fractures of the greater tuberosity of the proximal humerus.